

대구시 거주 대학생의 삼세대 동거의식에 관한 연구

Taegu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ree Generation Coresidence

강 혜 원 ¹⁾
Kang Hea-Won
김 상 회 ²⁾
Kim Sa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egiving and three-generation coresidence of the future family living, in order to use its analysed results as a basic for the housing for the aged in Korea and to improve quality of their living environment, the number of 321 college students' in Taegu were surveyed, and percent, crosstabulations were used to analysis the data.

The result showed firstly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ose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giving to the old parents between sexes, and secondly that they had a potential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eldest son or daughter for caregiving to the parents when considering the order of brothers and sisters. Thirdly, the respondents of the female students were far more negative for three-generation coresidence than that of the male students. Fourthly, there was no relation to the three-generation coresidence regardless of the family form or the order of brothers and sisters. Fifthly, housing type based on the three-generation coresidence showed that they preferred an independent house with the size of 31-40 pyong. It was also shown that the room for the parents should be arranged in the best position.

1) 정희원. 대경전문대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2) 정희원. 경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Ph. D

I.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될 실정에 이르렀다. 즉,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관은 무너지고 있는데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의학 기술 및 예방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노인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우리의 경우 산아 제한에 의한 인구정책의 결과로 200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74세 정도에 이르게 되고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7%, 65세 이상의 인구는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그리고 노령 인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인구 구성 계층의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노령화 인구에 관한 대책은 이미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 관한 여러 대책 중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가족적 차원에서 노인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므로 노인의 주거문제는 그다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쟁력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서도 찬반의 의견이 나타나면서 노인들만의 독립된 생활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 주거 환경에 대한 연구 동향은 노년층,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노인 주거의 개발에 근거를 두고 노년층, 중년층의 연구에 앞서 대학생의 삼세대 동거 의식 조사부터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와는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대학생 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족형, 부모와의 동거 의

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광범위하고 가속적인 사회 변화에서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은 가족 생활과 가족 유형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미래의 가족 생활에 있어서 삼세대 동거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가 한국형 노인 주거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앞으로의 삼세대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 노인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고찰

유정숙(1976)의 연구에서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 의사는 남자가 59%, 여자가 31.3%로 남자는 다소 동거 지향적이거나 여자는 별거를 지향하는 경향이였으며, 박연수(1986)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동거 희망율은 75%, 여자 대학생은 54%로 나타나 청년의 성별에 따른 동거 희망율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계몽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동거 희망의 이유는 자식으로서는 당연하다고 하여 젊은층의 사고 방식이 아직 건전하고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²⁾

또 신경주(1987)의 연구에서는 결혼후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청년이 64.5%이고, 그 반대가 35.5%로서 전반적으로 동거 지향적인 경향을 보여 앞으로 삼세대 동거 주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4)에서는 동거율이 45.2%, 별거율이 54.8%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동거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부모 부양 의식에 있어서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남의 빈도수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아들, 딸 모두에게는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삼세대 동거 의식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었으며 그 대부분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가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1) 장인협, 최성재,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3

주2) 신경주, 이혜원, 중년층의 삼대 동거 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회집, 1987, p.62

<표1> 선행연구에 나타난 동거 희망율

구 분	선 행 연 구	동거율	별거율	
청 년	권규식 1973	89.3	16.7	
	박연수 1986	75.0	25.0	
	신경주 1987	64.5	35.5	
대졸이상	통계청 (사회지표)	1994	45.2	54.8
고 졸	" "	" "	52.2	47.8
중 졸	" "	" "	62.1	37.9
국졸이하	" "	" "	72.9	27.1

<표2> 선행연구에 나타난 노부모 부양의식

년 도	1979	1983	1988	1991	1994
장남	20.8	16.2	16.8	13.1	14.4
아들모두	17.4	20.1	16.3	13.6	10.3
딸	0.3	0.6	0.4	0.4	
아들·딸 모두	7.3	30.0	43.5	49.3	35.4
자립	50.7	24.6	17.1	17.7	8.6
사회 및기타	3.5	8.5	5.9	5.8	3.0
능력 있는자녀					28.4
계	100	100	100	100	100

경제기획원,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86, 1993, 1994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구시와 그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1994년 11월 1일~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면접을 통한 자기 기입식이었으며 이들 조사 대상자들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만 한정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350부중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이 포함된 21부를 제외한 321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내용은 인구 통계학적 내용, 장래 노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내용, 삼세대 동거 의식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계 분석은 빈도, 백분율,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3>에서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215명(65%), 여자114명(35%)였으며 이들 가족내에서의 출생 순위는 첫째 순위인 장남, 장녀가 36%, 둘째 순위가 25%, 셋째 순위 14%, 넷째 순위 25%였다. 조사 대상자의 가족 형태는 71%가 핵가족이었으며, 29% 확대가족이었다. 주택의 소유관계에서 보면 자가 85%, 전세 및 기타 16%이었으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52%, 아파트 32%, 기타(상가병용주택, 연립 주택) 16%로 나타났다. 부친의 학력이 고졸이상일 경우 약 80%, 직업에서는 사무·행정·전문직이 40%, 월 소득에서 101-200만이 62.9%로 나타났다.

<표3>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변 인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215	65.3
	여	114	34.7
출 생 순 위	첫 짜	117	35.6
	둘 짜	83	25.2
	셋 짜	47	14.3
	넷 짜	82	24.9
가족형	핵 가족	235	71.4
	확대가족	84	28.5
주택 소유관계	자 가	278	84
	전세 및 기타	51	16
주택형태	단독주택	171	52
	아 파 트	105	32
세대주 학 력	기 타	53	16
	중 졸	74	22.5
	고 졸	144	43.8
세대주 직 업	대 졸	111	33.8
	전문·행정	83	25.2
	사 무 직	47	14.3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133	40.4
	농림·무직	66	20.0
세대주 월평균 소 득	100만원이하	58	17.6
	101~200만	207	62.9
	201~300만	45	13.7
	301만원이상	19	5.8

2. 장래의 노부모 부양 의식

1) 성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의한 노부모 부양 의식은 <표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결혼 후의 가족 형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핵가족(59.6%), 확대가족(40.5%) 정도로 핵가족이 많게 나타났다. 현재의 가족 형태의 확대가족 비율보다 조사결과가 높게 나타나서 젊은 세대들의 확대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표4> 성별에 따른 노부모 부양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별		합 계	X ² -값
		남	여		
결혼후 가족 형태	핵가족	121(56.3)	75(65.8)	196(59.6)	2.95
	확대가족	94(43.7)	39(34.2)	133(40.5)	
	합 계	215(65.3)	114(24.7)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장남)	모셔야한다	108(50.2)	30(26.3)	138(41.9)	***
	모시지 않아야한다	13(6.0)	12(10.5)	25(7.6)	
	모르겠다	94(43.7)	72(63.2)	166(50.5)	
	합 계	215(65.3)	114(34.7)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누구나)	모셔야한다	173(80.5)	82(74.6)	255(78.4)	1.58
	모시지 않아야한다	17(7.9)	11(9.6)	28(8.5)	
	모르겠다	25(11.6)	18(15.8)	43(13.1)	
	합 계	215(65.3)	114(34.7)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딸)	모셔야한다	163(75.8)	97(85.1)	260(79.0)	*
	모시지 않아야한다	32(14.9)	6(5.3)	38(11.6)	
	모르겠다	20(9.3)	11(9.6)	31(9.4)	
	합 계	215(65.3)	114(34.7)	329(100)	

***P<.001 *P<.05

노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 자녀 누구나 다 모셔야 한다. 경우에 따라 딸도 모실 수 있다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노부모 부양 의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자의 경우는 남자가 50.2%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26.3%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여자가 훨씬 더 소극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녀는 누구나 모셔야 한다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를 누구나 모셔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여 모두

약 80% 가까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경우가 더 적극적 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자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은 장남에 한해서 보다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라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 형태별 노부모 부양 의식

가족 형태별 노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5>에 나타내었다. 현재의 가족 형태에 따른 결혼후 원하는 가족 형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핵가족 이 71.4%에 비해서 결혼후 원하는 가족 형태의 핵가족 비율이 59.6%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가족 형태별 노부모 부양 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현가족 형태		합 계	X ² -값
		핵가족	확대가족		
결혼후 가족 형태	핵가족	136(57.9)	60(63.8)	196(59.6)	0.99
	확대가족	99(42.1)	34(36.2)	133(40.4)	
	합 계	235(71.4)	94(28.6)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장남)	모셔야한다	98(41.7)	40(42.6)	138(41.9)	3.51
	모시지 않아야한다	14(6.0)	11(11.7)	25(7.6)	
	모르겠다	123(52.3)	43(45.7)	166(50.5)	
	합 계	235(71.4)	94(28.6)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누구나)	모셔야 한다	183(77.9)	75(79.8)	258(78.4)	3.67
	모시지 않아야한다	24(10.2)	4(4.3)	28(8.5)	
	모르겠다	28(11.9)	15(16.0)	43(13.1)	
	합 계	235(71.4)	94(28.6)	329(100)	
노부모 부 양 의 식 (딸)	모셔야 한다	191(81.3)	69(73.4)	260(79.0)	4.71
	모시지 않아야한다	27(11.5)	11(11.7)	38(11.6)	
	모르겠다	17(7.2)	14(14.9)	31(9.4)	
	합 계	235(71.4)	94(28.6)	329(100)	

이것을 통해서 보면 향후 핵가족율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장남, 자녀 누구나 혹은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 형태별로 관계없이 장남이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대해서는 40%를 웃돌고 있는데 비해

자녀 누구나 혹은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대해서는 약 80%정도의 긍정적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3) 출생 순위별 노부모 부양 의식

조사 대상자들의 출생 순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 분석 결과를 <표4>에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들의 36%가 장남이나 장녀이고 64%가 둘째 이하에 속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 순위에 따른 결혼후 가족 형태와 노부모 부양 의식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출생 순위별 노부모 부양 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출생 순위별		합 계	X ² -값
		첫 째	둘째이하		
결혼후 가족 형태	핵 가족	72(61.5)	124(58.5)	196(59.6)	4.28
	확대가족	45(38.5)	88(41.5)	133(40.5)	
	합 계	117(35.6)	212(64.4)	329(100)	
노부모 부양 의식 (장남)	모셔야한다	57(48.7)	81(38.2)	138(41.9)	3.57
	모시지 않아야한다	7(6.0)	18(8.5)	25(7.6)	
	모르겠다	53(45.3)	113(53.3)	160(50.5)	
	합 계	117(35.6)	212(64.4)	329(100)	
노부모 부양 의식 (누구나)	모셔야한다	87(74.4)	171(80.7)	258(78.4)	2.98
	모시지 않아야 한다	14(12.0)	14(6.6)	28(8.5)	
	모르겠다	16(13.7)	27(12.7)	43(13.1)	
	합 계	117(35.6)	212(64.4)	329(100)	
노부모 부양 의식 (딸)	모셔야 한다	94(80.3)	166(78.3)	260(79.0)	2.01
	모시지 않아야한다	10(8.5)	28(13.2)	38(11.6)	
	모르겠다	13(11.1)	18(8.5)	31(9.4)	
	합 계	117(35.6)	212(64.4)	329(100)	

3. 삼세대 동거의식과 동거용 주택특성

1) 삼세대 동거의식과 부모와의 거주지관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삼세대 동거의식, 부모와의 거주지관계에 관한 분석을 <표7>와 <표8>에 나타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삼세대 동거 의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삼세대 동거에 대하여 60.9%가 긍정적인 반면에 여자는 34.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앞의 <표4>에서 딸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반응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표 7> 성별에 의한 삼세대 동거 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별		합 계	X ² -값
		남	여		
삼세대 동 거 의 식	부 정	84(39.1)	75(65.8)	159(48.3)	***
	긍 정	131(60.9)	39(34.2)	170(51.7)	
	합 계	215(65.3)	114(34.2)	329(100)	
부모 와의	주말마다	2(0.9)	2(1.8)	4(1.2)	3.58
	한달에한두번	71(33.0)	34(29.8)	105(31.9)	
	두어달에 한두번	102(47.4)	52(45.6)	154(46.8)	
	매월마다	26(12.1)	19(16.7)	45(13.7)	
	합 계	215(65.3)	114(34.7)	329(100)	
방문 횟수	기외가지않음	3(1.4)		3(0.9)	3.58
	기 타	11(5.1)	7(6.1)	18(5.5)	

***P<.001

있다. 여기에서 여자의 경우는 결혼했을 경우 머느리 입장에서 나온 반응이라 보여진다.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여자의 경우 딸과 머느리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은 진보적인 가족관과 전통적인 가족관이 상호병행되어 잠재하고 있음을 나타낸것이라 보여진다.

결혼했을 경우 부모와의 거주지 관계를 <표8> <표9>에 나타냈는데 따라 P<0.0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26.0%가 긍정적인 반응, 여자측 부모와의 동거는 5.6%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데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것은 26.0%가 긍정적이며 여자측 부모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것은 37.7%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것은 1.9%인 반면에 여자측 부모의 경우 18.6%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남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는 동거,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방까지 한하여 원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측 부모는 같은 지방이나 다른 지방 쪽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자는 남자측 부모가 근거리에 거주하길 원하고 여자측 부모는 원거리에 거주하길 원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와의 동거에 비해 15.8%

가 긍정적인 반면에 여자측 부모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1.8%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지방에서는 남자측 부모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24.6% 긍정적인 반응인데 반해 여자측 부모에 대해서는 3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자의 경우 남자측 부모와는 동거를 비롯하여 같은 지방내 근거리 거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자측 부모는 동거하지는 않으나 같은 지방의 근거리의 거주를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여자의 경우는 양가의 부모가 모두 근거리에 거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자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결혼후 부모로부터 분가했을 경우 부모와의 방문 횟수를 보면(표7 참조)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으며 남,여 모두 주말마다 내지는 한 달에 한 두번 방문하는 것이 약 80%정도 차지하고 있다.

〈표8〉 남자측 부모와의 거주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별		합 계	x ² 값
		남	여		
부모와의거주지관계	동거	52(26.0)	18(15.8)	74(22.5)	**
	같은동	28(13.0)	13(11.4)	41(12.5)	
	같은단지	16(7.4)	13(11.4)	29(8.8)	
	같은구	21(9.8)	10(8.8)	31(9.4)	
	같은지방	56(26.0)	28(24.6)	84(25.5)	
	다른지방	4(1.9)	13(11.4)	17(5.2)	
	기타	34(15.8)	19(16.7)	53(16.1)	
합계		215(65.3)	114(34.7)	329(100)	18.27

**P<.01

2)가족 형태별과 출생 순위별 삼세대 동거 의식 조사 대상자의 가족 형태별, 출생 순위별에 따른 삼세대 동거 의식을 분석한 결과를〈표10〉에 나타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삼세대 동거 의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긍정과 부정이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 순위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으며 거의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9〉 여자측 부모와의 거주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별		합 계	x ² 값
		남	여		
부모와의거주지관계	동거	12(5.6)	2(1.8)	14(4.3)	*
	같은동	11(5.1)	11(9.6)	22(6.7)	
	같은단지	16(7.4)	17(14.9)	33(10.0)	
	같은구	12(5.6)	12(10.5)	24(7.3)	
	같은지방	81(37.7)	37(32.5)	118(35.9)	
	다른지방	40(18.6)	15(13.2)	55(16.7)	
	기타	43(20.0)	20(17.5)	63(19.1)	
합 계		215(65.3)	114(34.7)	329(100)	13.62

*P<.05

〈표10〉 가족 형태별과 가족 순위별 삼세대 동거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 형태		합 계	X ² 값
		핵가족	확대가족		
삼세대 동거 의식	긍정	116(49.4)	54(57.4)	170(51.7)	1.76
	부정	119(50.6)	40(42.6)	159(48.3)	
	합계	235(71.4)	94(28.6)	329(100)	
종속변수	독립변수	출생 순위		합 계	X ² 값
		첫째(장남,녀)	둘째이하		
삼세대 동거 의식	긍정	65(55.6)	105(49.5)	170(51.7)	1.10
	부정	52(44.4)	107(50.5)	159(48.3)	
	합계	117(35.6)	212(64.4)	329(100)	

3)삼세대 동거 의식과 주택 형태

노부모와 동거를 가정한 경우 삼세대 동거 의식에 따른 주택 형태와 면적, 부모 방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를 〈표11〉에 나타냈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 P<0.05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동거형 주택으로 일반 단독 주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삼대 동거형 주택이며 부정적인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에 이어 삼대 동거형 아파트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삼대 동거형 APT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삼세대 동거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홀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의식이 젊은 세대에게도 잠재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지에 대한 향수가 저변에 깔려져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11〉 삼세대 동거의식과 주택형태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 택 형태					합 계	X ² 값
	일 반 단독주택	일 반 아파트	삼세대동거형 주택	삼세대동거형 APT			
삼세대 동거 의식	긍정	91(53.5)	18(10.6)	33(19.4)	28(16.5)		7.78
	부정	80(50.3)	13(8.2)	21(13.2)	45(28.3)		
	합계	171(52.0)	31(9.4)	54(16.4)	73(22.2)		
	주 택 전용 면적					합 계	X ² 값
		30평 이하	31-40평	41-50평	51-60평		
삼세대 동거 의식	긍정	20(11.8)	62(36.5)	55(32.4)	19(11.2)	14(8.2)	176(51.7)
	부정	26(16.4)	52(32.7)	46(28.9)	16(10.1)	19(11.9)	159(100)
	합계	46(14.0)	114(34.7)	101(30.7)	35(10.6)	33(10.6)	329(100)
	부 모 방 위치					합 계	X ² 값
		제일크고 좋은 방	그다음방	경우에 따라	모르겠다		
삼세대 동거 의식	긍정	103(60.6)	13(7.6)	51(30.0)	3(1.8)	170(51.7)	
	부정	89(56.0)	9(5.7)	58(36.5)	3(1.9)	159(48.3)	
	합계	192(58.4)	22(6.7)	109(33.1)	6(1.8)	329(100)	

*P<.05

삼세대 동거 의식에 따른 주택 전용 면적과 부모 방의 위치의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세대 동거 의식에 대한 긍정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전용 면적은 31평에서 40평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41평에서 50평으로 나타났다. 단지 긍정적인 경우 41평에서 50평의 응답이 약간 많다.

전반적으로 삼세대 동거의 경우 31~50평 사이의 면적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부모를 모실 경우에는 방이 3~4개 정도가 되어야 만이 세대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3~4개의 방 사이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기 마련인데 특히 우리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노부모를 모실 경우 부모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세대 동거 의식의 긍정 여부에 관계없이 약 60%가 제일 크고 좋은 방을 배분해야 된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따른 효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다. 혹은 그 다음 방을 드린다 등이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차 생활 양식의 변화나

가정 내의 재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V. 분석 결과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의식과 삼세대 동거의식 및 주택 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의한 구별이 뚜렷하였고 그에 따라서는 능력있는 자녀가 부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꼭 장남이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남자의 경우 50.2%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26.3%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훨씬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났지만 자녀는 누구나 모실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출생 순위별로 보면 장남, 장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둘째 이하에서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남, 장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잠재적인 의무감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삼세대 동거 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의한 구분없이 동거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긍정적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보겠다. 부모와의 거주지 거리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측 부모가 동거 내지는 근거리에 거주하길 원하고 여자측 부모는 원거리에 거주하길 원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양가의 부모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 형태나 출생 순위에 따른 삼세대 동거 의식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삼세대 동거 의식에 따른 주택 형태는 유형을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전용 면적은 31~40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1~50평으로 나타났다. 부모 방의 위치는 제일 크고 좋은 방을 드려

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최초의 신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전통성을 지향하는 측면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확대 가족에 대한 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삼세대 동거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전통적 가족관은 소중히 여기고 있음이라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장남보다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실 수 있다는 쪽으로 의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결과에 비해 삼세대 동거 주택 형태의 경우는 삼세대 동거형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아직 실제적인 자신의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있다고 보겠다. 이 결과만을 통해서 본다면 노인 전용 주거보다는 삼세대 상호간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단독 주택의 평면 개발등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고계철. 대도시 주거단지내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태일. 일본의 고령자 주택 및 복지시설의 동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1호, 통권 39호, 1992.

박재간.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전문가 초청 노인복지 학술 세미나. 1992.11.

상형중.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주택 개성에 관한 연구. 서울:삼우 종합건축사무소. 1992.

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서의택·박태환. 도시지역 노부모를 위한 복합형 거주시설의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4권 제5호.1988.10.

신경주·이혜원. 중년층의 삼대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회집,1987.

전명숙·강순주.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제6호 통권 제 44호, 1992.12.

전창욱. 한국노인이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지순·윤복자·윤진·조혜정.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 주택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최정신. 3대 동거가족의 주요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